

暗影

123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

著者 瞬星 秦學文

暗影

京城 東洋書院 藏版

登錄 番號	105
分類 番號	
圖書 番號	

여쭙게 보면 人生이 그대로 藝術이다. 아모器具도 빌 것 없고 特別한 表現도 必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藝術을 藝術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各個의 生活味로 享受코저 하면 그것을 觀念化
 하며 形式化하지 아닐 수 없다. 이래서 時間的으로는 切實한 再現이 要求되고 空間的으로는
 巧妙한 縮約이 要求되어 아모리 無技巧・不技巧라 하면서도 언제 무엇으로든지 거기相應하
 는 最勝한 技巧을 찾게 되는 것이다. 一幅布에 攝收된 數行線・數點墨이 往往이 天然의 大造化
 보답더 사람을 悅惚과 莊嚴의 境域으로 이끌어 들임은 누구든지 體驗하여야 하는 바이다 藝術
 업시도 豐潤한 生活味를 누릴 수 있다 면 모르거니와——美를 除外하고도 우리의 生活相이 圓具
 充足할 수 있다 면 모르거니와 眞實으로 못하고 惚惚하고 포근 포근한 바탕으로써 當來하는 新文
 化의 不得不備具할 一大條件을 삼는 다하면 斯界의 開拓과 斯藝의 修練을 여쭙힐 쓰지 아니 할
 까 보나. 人生及社會의 綜合的 表現인 바에 그 美相妙好가 하로만 비 우리에 게 現前되기를 願祝



하지하닐까 보나. 늑흔술씨와 섞어 난재조가 한아라도 만히 이方面에現出되기를翹望치하
 닐까 보나。瞬星秦君은 특별히 이方面의일로써 多大한期待를世間에바다오거니와 나는 그
 故麗澤相資의機會를남달리만히가진만큼 優秀한그稟質과超異한그誠意에對하여 보고알
 고잇는바가與他自別한것이잇든터이다。날지안흐면모르고을지안흐면모르지마는 한변을
 직이면반듯이驚人冲天의槩가잇슬줄을心許하고하로밧비그날이오기를기다린터이다。이
 제이小編으로말하면 因循이그獨到한境界를開現한것도아니오 또로세는로세지마는獅子
 의全力을發用한것도아니니까 념우過情한말로써頌揚함은 들어어그本意가아닐것이다。그
 러나 人情의機微에對하여 그銳利한摘拔力과 心理의開敷에對하여 그纖悉한描寫能은雲
 間의片鱗처럼 그의超邁한技倆을十分想見케하는것이잇다。이만한역념이 다른날凌霄의喬
 木이되면 그그늘이얼마나넓고 그열을이어써케살질것을 아모든지얼는念及하게하는것이
 잇다。朝鮮生活의情味와 朝鮮心의脈動이 어찌케만히 그의心匠과手法을말미암아 光大하
 게表現되는지 지방까지의期待도決코徒爾가아닌줄을알것이다。藝術中心의新朝鮮建設이
 얼만한信賴를 그에게囑累할지라도 바이헛노릇되지아니할것을 推斷할듯하다。바라건대이
 一篇이新朝鮮及朝鮮人의 生活中心인藝術堂에 光色잇는要石이되소사。

一九三三. 一. 二二。

東明社에서

가장信愛하는 한샘

.....翻譯이나 하면 完全한翻譯도 아니요, 그
 러면 創作이나 하면 勿論 創作도 아니다. 밥도
 아니요 떡도 아닌 俗稱 바두리. 『발덕이』가 보면 비
 웃겠고 『색장사』가 보면 怒하겠스나, 아주 비
 웃음을 맞거나 怒함을 바들만한資格도 업는
 『초대』.....【筆者】.....



瞬 星 生

弱한가을에는이때지고 저녁늘(晚霞)만 별거케 西便하늘을돌도린 어느날저녁이라. 桂
 洞은길로向하야 천천히을타가는 두사람의洋服장이. 한사람은 훌죽하고 키가크고, 또한
 사람은 뽕뽕하게 가로퍼졌스니, 反對되는것은 그의形體뿐만이아니다. 훌죽하고 키큰이는
 바지무릎이 벌어 다다라서 뽕뽕한것을가게된 새옷이 지르르울르는灰色洋服에, 삭갓쟁이가
 보면 씹씩늘날만한 가늠은帽子를쓰고, 體格에맞지안는金眼鏡을버텼는데, 얼굴은길고
 광대씨는 툭볼거졌스며, 눈섬은수하나 鬚髯은얼마일서 어쨌지窮狀스럼해보이니, 술적보
 기에 老書生인듯한사람인데, 무어인지 잔뜩치니 辯護士가방을것해세엿고, 또하나가로

피진사람은, 눈점은 얼마업는데 눈은 회동그라코 코와 입을 한 줄에 쥐었다는 듯하야, 얼골이 몹시 옹골하게 생긴 品格업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대신 체림체림은 칠썩거들어, 무엇인지 이름도 모를 時體감으로만든 산뜻한洋服에, 죽기가슴에는 金時計줄이 번쩍 번쩍하야, 우에 쓴 中山帽로부터 말에 싣힌 붉은 編上靴에 이르기가 저 몸에서 부친 것이 무엇하나 새로 마추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고 이는 丕寒竹인지 무엇으로만든 호리호리한 가는 開化杖을 들었다.

자세히 보즉 그 키 큰 사람은 언제던지 가을이 되면 그 옷에 그辯護士가 방을 세고 每日午前八時頃에 寺洞某私立大學 敎育門을 향하야 고개를 돌속이고 석벽 석벽들이 가는 그 사람이니, 드문즉 그學校講師로 講義錄編輯主任을 겸했고, 丕學友會幹事의 한 사람인데, 金經濟原論과 貨幣學의 講義를擔任한 宋哲秀라 한다. 只今부터七八年前, 그가二十八歲때에 大學校를 마추었다 하니, 今年에三十五歲인지 六歲된 원만치 남은 法學士다. 生徒의 評判을 듣건대 그의 講義는 乾燥無味하야 합을 만나오는 대신에 論理가 明晰하야 不分明한 곳이 없다 한다. 그러나 단지 試驗點數가 薄하야 그다지 人望이 없다.

또한 사람——가로 피진紳士는 南大門通某俱樂部에 層玉突室에서 늘 공을치고 있는 某會社社員 韓慶男이라 하야, 年前에 그社社長이 歐米視察을 갔을 때 隨行하하 다 녀온 後로 아츰부터 저녁까지 倫敦에서 저라 巴里에서 저라 하고 늘 西洋이업에서 저날새가 업는 까닭으로, 뉘구멍으로서는 案內설이라 는 別名을 두는 사람이니, 이는 高等商業出身이나 宋哲秀와는 同鄉之人으로 中學校外지 同窓으로 지내던 親舊다. 나희는 哲秀보다 한두살 앞에선 듯하다.

아모말 업지 큰길로 올라가다가, 衛生所를 지나노려니 韓慶男은 먹던 呂宋煙의 재를 털고 「그러면 지금 그一件을 들이네 그러려!」

「글세…… 들린다 고도 할 수 업스나……」 하고 哲秀의 말은 實로 不分明하다.

「그러나 靜子는 자네가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작, 자네가 재미업다고 생각하니 어찌到底히 成事가 되겠나!」

「하니 내가 재미업다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實로 意外일세. 이 議論을 하면 자네가 매우 깃머 할 줄 알았더니…… 참 實로 意外일세.」

「글세 그러니야 내가 어찌 안 된다고야 했나!」

「안 된다고는 하지 아니하면서 그러케 씨썩드듯 해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도모서던지 손님 待接이지. 자네도 알겠지? 先生님 先生님하고 씨마칠 것이요 씨썩이지낼 것인데. 누가 웃던지 조금인들 부끄러울 것이 있겠나. 씨피가 있대서 낫부담!」

「글세 그러니야 저기 對해서 別로 더 할 말은 업네마는……」
「그럼 무엇이 不足하단 말인가?」 하고 詰責하는 듯이 말한다.

二
哲秀는 얼마간 씨썩드듯해서

「그러치만 그黃富成이란사람의家庭이 所聞에듯전대대우...그...素亂하다지않은가?」

고 말을마치자 슬며慶男의 얼굴을 켜는질해보매 慶男은 아조천연하제

「그래.그야 빈주먹하나가지고 그만쯤 成功한 手段家인걸 品行이 조홀리야잇나 그것이 卽한말인가?」

「그러고 그사람이...저...가슴 안잡자기를 건드려노코는 돈뎌문씩 주어서 떼어버린 데그려?」

「호호」하고 慶男이는 코우숨을치더니 「알겠네 자네는 그런일에對해서 넘려를하네그러.그러면 내가부득이 勸하지도안겠네.그야靜子가 그와가름美人이고 또 저편쪽에서는 너편네라면 암치속하고틸비는러이니까, 오래잇는동안에는 그늬은이가 무슨짓을 할는지 그는내가 擔保할수업네.」

「아니 그런일을내가 두어....」

「그러나말일세」하고 남의말도잘듯지아니하고 「자네도 어지간히 이상한사람일세.그외 지일에 집을내면서 그리고도 實業界에서 한번活動을 해보겠다고.호.호.그러느니보다 내가그른말아니하네.국으로 一平生敎師질이나해먹고 便히지내는게조호리.」

「왜?」

「왜라니! 그러면자네는 저,過히 不正한것도아니하고 이씨케 잘한번 成功을해보라는 겐세그러?」

「꼭그러케생각하는바도아니지만, 그러나 父母나 親戚도다버리고 自己혼자만 成功하라고도생각지안네.」

「그러니까 이씨케업병,생하고 成功을해보자는 希望이아닌가? 成功도하고심호나 人情도 셀수업다고. 그런반동전통의 수작이....」하고 라박을주며 말뚝을흔쳐버린다.

「그러면자네는 人情을버리지안호면 事業에成功을하지못한다하는말인가?」

「勿論이지. 普通사람이고보면 勿論그러치.그러나 자네가튼豪傑은 아암 다르겠지!」 哲秀는 의지로 우스면서

「글세. 내가豪傑인지는모르겠네마는, 그러나 자네생각도 어지간히極端인듯하예.」

「極端이아니고서 目的을達할수가잇나? 반동전통으로 무엇이 되겠나?」

「글세그도그릴는지는모르겠네마는....」

「그러니까말이야」하고 신이나서 「萬若돈을 좀 모호랑이면. 자세듯게. 만약돈을좀모하 보라거던말일세. 人情이니 무엇이니 그씨위는 다 선뜻잡여내버려야해.」하고 큰소리로 억기까지말하다가 별안간 목소리를나쳐

「그러케 위선決心을하고말일세.그後에는 自己속앓음은생각을 남에게알나지안도록 한번버리는 人情을 다지집어서 人情이란 칼(假面)을써야해.그도그것을 늘쓰고만잇스면 또 안되지. 臨機應變으로 세를설해서 가슴가슴 그눔을 버섯다 썬다한단말이야.그것이 그手段이야. 學者는아마얼른알아들기 어려울레지.」하고 우스워서 겹쳐서 보고잇지 못할

만치 써먹는다.

三

哲秀는 아모말습지 고개만꼭속이고잇스니, 그말에 感服을해서 그리함인지, 或은 허청으로듯기만함인지, 어쨌지 不分明하것만, 신이난 慶男이는 그런일 저런일 相關하지아니한다.

『알겟나?』하고 더욱 더, 사나서, 『돈모는秘訣은 먼저人情을버림에 잇느니. 그리고그다음에는 理想을버려야하는것일세. 자네와가리 그러케언제까지고 理想에膠着하고서야 돈이 모힐수가잇나. 선뜻그놈을 집어버리고 무엇에던지 한갓 利己主義로가지아니하면아니되네.』

『그러케하는것도 亦是一種의理想이아닌가?』

『여보게, 여보게. 그제 원소린가. 제발말소사. 내말을理想이라고드르니 참자네도여지간히미련한사람일세. 나는 事實을말하는게야. 흥, 이게 事實일세. 이래보여도活動하는사람이라네. 理想이니 무엇이니 그사위廢物가튼것을 만지고잇을餘暇는업서!』하고氣焰萬丈이라, 『자네는 그런말을하지만, 잘생각해보게. 理想이란게 대관절무엇인가? 현(古)冊子에서, 튀어나온 怪物이아닌가? ... 여보게, 여보게. 그러케늘날것이야 무엇이냐. 꼭그리치, 아아, 참 理想이란것은 현冊에서나온怪物이야. 그런怪物에게 덩혀써여서

눈을뜯쳐 늘 꿈만우고잇스니, 자네야말로 딱한일일세마는 벌써죽은사람일세. 理想이란산체로 사람을죽이는것이니 世上에 무엇이무섭다기로 이것가더무서운것이더어디잇겟나. 산(生)일을하라는사람이 죽어가지고야 해볼수업지. 어서빨리그理想인지무엇인지를버리게. 내가그른말은아니니와, 어서바빠 내버리게.

『글세.』

『글세가아니야. 첫째자네는慾心이적어. 그러케慾心이적고서야 무엇이된단말인가. 대체慾心이란것은, 여보게 자네는무엇이라고생각하나? 慾心이란것은, 자세듯게,慾心이란것은말이야 사람을찌(蒸)서썰은집(汁)이야. 오세말로 『애기쓰』란말일세. 그런아닭으로慾心속에는 사람의甘味가들어잇서. 현冊에서나온 怪物과는 性質이다르에. 그래서그놈이 몸배 充滿하면 사람에게 半分の몹이 나지아니하는것일세. ... 아, 무섭지. 현冊에서나온怪物에게 덩혀써인자는 熱心을내면 狂人이되고, 그러치안하면 아모찌에도 못살廢物이되어서 處置하기가어려우나, 사람의眞인慾心이 充實한자는 活氣가잇서, 사람이살았는아닭으로 社會에 나서드래도 生活의條件이꼭마져서 速히成功을하느니, 理想이니, 主義이니, 그사위것에 膠着하는사람은, 사람이 변(變)성(性)이업서 일을하지못한단말이야. 자네도이러케말하면어찌치만 양만해도 좀... 저... 일못하는때의系統을 바든듯해.』

『글세.』

『비해말하면 오늘이악이로말할지라도 내가자네갓고보면 理想이니 人情이니하는그사

위수작은 짐어치고 『그것조흔말일세』 하고 선, 靜子를 보낼 터이야. 암, 보내지 안코 어찌! 자네는 靜子가 그놈은 이한데 구찬음을 바들까 해서 넘려하는 듯하야 마는……』

『아니, 내가 어찌 그런일을 염려하지는 안해.』

『글세자…… 구찬음을 밧다가 靜子가 또 許諾을 하면 덕을 재미잇지 아니한가. 그리고 보면 지금夫人은 肺病으로 해서 살날이 언제 몇칠 남지 못했스니까 죽은 후에야 실행하고 해도 의례히 대신들어 안을 것인데. 窮한學士의 妻弟로서 甥충세, 어서 黃富者의 令夫人! 靜子로 보드래도 어찌 것이야 실행시킬라 겠나.』

『그런것은 다야 모래도 相關업지마는』 하고 그는 구치안듯이 『단지 靜子가 그런 繁華한 家庭에는 適合치 아니하니까, 가겟다고 할는지 어설는지 그것을 넘려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左右間집에 가서 한변當者의 意嚮을 들어 본 뒤에 하세.』

『그러면 무리보아서 실행하고 하면 그만들자 정인가?』

『글세……』 하고 생각한다.

『에잇! 자네는 恒常저리니까……』

『넘려말게! 그러면 내가 잘판, 래서 될수잇는대로 가도록 함세.』

『을치 그러케말을 해야 하는 법이지. 무일, 작은 女子의 일이라 자네가 말한마디 하기에 달렸지.』

『글세.』

『무일, 이것이 또 當者에게害되는 일이지 아니겠나.』

『그래.』

『자 자네도 잘해서 어서 教師질 그만두게.』

『글세…… 그러면 잘가게.』

『나는 또 우리집까지 오는 줄 알았더니……』

四

慶男이와 別한 哲秀는 고개를 푸욱, 속이 고 桂洞길로 다시 내려온다.

종용한 밤서울에 말업시 멀리 옥옥선 木覓山은 볼제마다 果然버리기 어려운 景致이언만, 哲秀는 한변을 써보지도 아니하고 무손집은 생각을 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쌍만 내려다보며 두번두번 내려온다.

不幸한 靜子의 一身을 어찌 措處해야 할가. 이일로 하야 近日적지 아니 속을 썩이던 터이니, 慶男의 말을 드르매 얼마간 귀에 썩이지 아니하는 바는 아니나, 다시 생각하진대 色盲이니 色狂이니 하고 世上에서 조치 못한 評判을 듣는 黃富成의 집에는, 비록 家庭教師라고는 할지라도 果然 보내고 싶지 안라. 덕구나 靜子는 女子의 몸인즉, 그런 말만 듯더라도 必是 別별설고 슬허할 터이나, 이것을 自己一個人의 意思로 처음부터 싸끈어 拒絕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하고 돌아가서 이런말을 하고 보면, 靜子는 自己 뜻에 조코 언짢은 것을 不關하고 畢竟 黃哥의 집으로 가게

될 것이 세, 언한 노릇이라. 그러나 이 일을 말하지 아니치 못할 여러 운事情이 또 있다. 一家의主人으로서 자기 집안일이 萬事가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하게 되지 못하며, 焦燥한 생각은 가슴에 불을 피우는 듯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라도, 아아, 人生이 아차 그릇하야 남의 집 데릴사위의 몸이 되지 말지라도 하고 또다시 自己身勢를 恨歎한다. 哲秀는 金弼俊의 데릴사위인 까닭으로.

그러나 丈人되는 金弼俊은 婚姻前에 이미 이世上을 떠났은즉, 지금 손우의 사람이라고는 丈母되는 鳳子未亡人하나 이요, 그外에는 鳳子의 所生 卽 哲秀의 妻되는 英子와, 弼俊의 不品行으로 因하야 針母의 배를 빌어나온, 問題되는 靜子뿐이요, 사나히라고는 哲秀하나이니, 쓰나 다나, 조흐나 인잔흐나, 左右間 一家의 主人公이라, 그가 집안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함은 넉우 懶弱하다 하겠으나, 그러나 아모리 하야도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 그야 하라고 들면 못할 바는 아니나 단지 그런 후에 뒤구녕으로 서른 소리, 우는 소리, 맞뵈해서는 비효는 수작과 상서롭지 못한 일을, 그것이甚해서 화푸리로 지랄치는 법, 그런 것이 果然 보기가 슬허서 그저 참고, 自己고집을 세우라 하던 勇氣도 頓挫되어, 母女의 하는 대로 지내오던 多年의 惡習慣이 지금은 인애 아조 딱박혀서, 다시 씹씹 변통할 수 없게 되었다.

靜子도 實로 薄命하야, 母親의 배속에서 나오자마자 乳母의 집에서 길니다가, 次次長成하야 父親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매, 그제 그父親으로 말하면 某部高等官으로 한창 들날니던 판이라, 父親이 自己體貌를 보아서도 普通學校로부터 女子高等普通學校二學年까지는 無事

히 通學하게 하였으나, 靜子가 차차年滿해지자 偶然로 家運이 漸漸기우러지거매, 父親은 화를 내는 듯하. 靜子를 寄宿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나보니 學費가 넘우過히 든다 하야, 또다시 一場風波가 난後 畢竟에는 退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西大門近處 어선 耶穌敎學校에 寄託하게 되매, 靜子에게는 이것이 들어 不幸中다 행이 되어, 그學校안에서 英語가 熟達하게 되었다. 自己도 깃보게 생각하야 專心으로 工夫하든中 父親이 病死하자 家庭大改革의 口實下에서 前에 父親生存時에 靜子의 母으로 세어두었던 財産은 언제어느 틈에 어대로 갖는지 不分明하게 되고 억제로 退學을 시켜, 哲秀가 婚姻하는 同時에 靜子도 父의 집을 보내었다. 그리하야 얼마 동안 地方에 가 있섯더니, 不幸히 그 남편과 死別하고 친정에 돌아오매 온갖 구박을 다 마드면서, 當장 갈 곳이 없는 불상한 處地라. 그것을 哲秀는 自己身勢와 比較하야 衷心으로 불상히 생각하는 바이나, 情이 冤讐라 하는 것이 이런 일을 가르쳐 말한인지 哲秀가 그의 편을 들면 들수록, 丈母와 妻는 이 不幸한 사림을 들볶아 못살게 군다. 그리함으로 哲秀는 더욱더욱 惻愴히 생각하는 바이다.

五

『아, 참 惻愴하다.』하고 靜子의 身勢를 불상히 녀어면서, 哲秀는 알엇大關압홀 지나 農圃안으로 들어간다. 『그다지 불상하고 困難한 處地에 잇는 靜子라도 오를 慶男의 하던 말을 드르면 必然히 쉼줄몰라 망서릴 것을, 그것을 변연히 알고도 그런 재미 없는 이야이를 傳하지 아

니하면 아니되겠는 이름의 無氣無力한 것을 참무엇에나 比할가! 아,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행어나 남의 데, 일사, 위가 될 것이 아니로다 하고 또 다시 自己身勢를 恨歎하고 한숨을 치쉬었다 내리쉬었다 하면서 돌아가더니, 못, 뜻, 생각이나 보니 죽음지나온지라, 두서너間다 시를 처와서 引便 좋은 골목으로 들어간後, 哲秀의 形體는 한참동안 어두운 밤에 싸혀 보이지 않더니, 그가 다시 그 좁은 골목안 自己집 長明燈 아래로 나르날새에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苦痛의 빛이 역췌었다. 大門을 열라고 門에다 손을 대었다가 다시 잠간躊躇한다. 내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쩔지 地獄가운데나 빠지는 것 같다. 한참 있다가 상을 쟁호리고 출을 락배앗더니 決心을 하고 門을 세지 열었다.

大門 소리를 듣고 다들 질하야 中門 간에나 온 이는, 여러 째 싸라 다 해지게 된 생, 죽, 치, 마에 기운 정저고리를 입은 靜子이니, 今年에 二十三歲라 하나 체수가 잔어 마치 스물하나나 스물그랑으로 밧게 보이지 아니한다. 싸,는 險口의 慶男이 차지도 美人이라고 許諾할 만치, 비록 衣服은 변변치 못하고 또 얼굴에 살은 빠졌다 할지라도, 살췌이 희고 갈죽한 얼굴에 가는 눈은,尋常히 담은 입에도 美의 그림자가 서리고, 特히 그 焦點이라고 불만한 눈이 가만히 무엇을 물췌에는 어찌라 말할 수 없는 情趣가 있다.

哲秀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방그레 웃으면서 반가히 마저,

『인제 들어오셔요.』하고 人事를 하매, 밤에 어두어仔細히 보이지는 아니하나 무슨 빛인지 洋燈기가 번뜻하고 그랑기알에로 천고개가 술적 보인다.

自己의 안해가 나와 맞지 아니함은 例事件인즉, 哲秀는 別로 그것을 掛念하지도 아니하는 듯이, 靜子에게 데면데면히 人事를 하고, 마루에 올라가, 自己房으로 定한, 전니房으로 들어갈 때 칼칼 어두어 燈盞가 저오기를 기다리고, 房한 가운데 웃음췌었다. 얼마 아니 되어 靜子가 한손에는 집안에서 입는 朝鮮옷을 가지고, 또 한손에는 靜子自己房의 것으로 定해놓은 작은 燈盞을 들고 불이나 케들어와, 그房冊床우에 노련, 그亦自己가 誠心을 다하여 짜흔 毛糸製 람포거리우에 살짝이 노코, 哲秀를 본즉, 아모말도 입시 웃음서 잇기만 하는지라.

『어째 우두허니 스셨어요?』

『안방이 조용하니 沐浴들을 잤소?』

『네. 아나.....저.....어제 밤에 가신데.』

『또活動寫眞야?』하고 씩씩할래, 저고리 벗던 손을 멈추다가 『잘다니는군』하고 다시 平常時의 語調로 『그래서 靜子가 또 집, 직, 이, 는 뜻을 하는구려? 어찌잔말인구, 허, 허, 허.』

『그러나 저는.....』하고 말을 하랴다가 哲秀가, 매다라는 자, 락(籠)가 해염(泳)을 치는 形狀으로 와, 이, 샷스를 버스라고 애쓰는 것을 보고, 그 소매를 잡아다니면서 『그러케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치, 靜子는 그런데 그러케조하지안치....., 아아, 참고맙소.』하고 朝鮮옷을 박 구어입으면서 『그러나 아모도 없서서 마친곳소. 내가 靜子에게 좀 할일이 가잇는데.....左 右間 茶나한盞갓다주오.』

『진지는 어찌케 하세요?』

『밥은 먹었소. 그것보다도 茶를, 茶를 썰니...』하고 冊床에 누워 앉아서 안는다.

『네』하고 對答을 하고 거기에서 노흔 洋服을 집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 가락할새 슬쩍 돌아다보는 눈과, 그의 나아가는 양을 보고 있던 哲秀의 視線이 맞부딪치매 상긋웃고 고개를 숙이면서 『아재 藥酒잠수셨습니 다 그러?』

哲秀는 입을 벌리고 대답하고

『호, 호...』

六

哲秀는 뒤를 향하고 허리를 굽혀 燈불의 심지를 나추고 있슬새, 누가 房안으로 들어오는 인 귀척이나는 故로, 必然 靜子가 茶를 가져오는 줄로 미리 짐작하고

『웬걸』 그리 케셀니 가져오오.』하고 뒤를 돌아다본즉, 안잡자기 福童이 미가 火爐를 가지 고 들어와 쌍쌍한 몸을 주체를 못하면서

『인제 들어오셨어요?』하는지라. 哲秀는 입에 내여 말은 하지 아니하나 『나는 누구라고 뵈 빌어먹을 것!』하고 다시 이편으로 회돌아 안는다. 『이년이 사람잡는 사이의 監視兵이다. 아마 白銅한 품을 파앗겠지』하고 속으로 그리 케생각하나, 부러모르는 체하고 있스매, 福童이 피는 엉덩이가 근지러운듯이 火爐불을 노차마자, 房門밖으로 나가 가더니, 저편을 向하

고 달려온 허바다를 닮은 날름내 밀제, 靜子가 눈앞에 웃웃는지라, 얼굴이 싹벌개져서 슬슬 逃遁을 친다.

靜子는 愁心を 품은 눈으로 한참그 뒤모양을 보다가 아모 말도 아니하고 房으로 들어와

『저, 普通茶가 다임서저서 보리茶를 가져왔는데 淸茶하오?』

『보리茶? 조! 치!』하고 靜子와 對할새는 언제던지 늘 言容이 快活하다.

靜子는 소리없이 가만히 앉아서, 김이 무럭무럭나는 茶를 썰라 哲秀를 주매, 哲秀는 얼른 茶盞을 들어 連접히 세 목을 음습마시더니 『아아, 조타! 인제야 겨우살아났군』하고 또다시 두 목을 가량 맛보고 『아, 고소하다!』하고 茶盞을 코에 대대어 냄새를 맡다가면서,

『어찌키면 이러케 잘복жат소.』

『네, 日前에 복가두었던 것이야요. 녀우라서 쓰지안하오?』

『아니, 쓴게 무어야! 보리茶란 복기를 잘복가야해.』하고 또한 목을 먹더니,

『암만해도 靜子는 달려!』

『네!』하고 그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암만해도 달라!』하고 또다시 혼자 感心하야 『茶한盞을 주더라도 이러케親切하지. 인 나가 언제이러케 한번 해줄디야?』

『에이그!』하고 부끄러운듯이 상긋웃는다.

『참말이야. 그런사담으로 나는 늘이러케 생각하오. 靜子에게는 未安하지마는, 靜子의

不幸이 나에게는 幸福이 되었다고.』

이러케 말하는 얼굴을 靜子가 이상스럽게 쳐다볼새에 두사람의 눈이 딱 마주치매, 서로를 씩눈을 흘린다.

哲秀는 생각이 깊은 눈으로 가만히 남포불을 되피려보다가

『이상한말을 하는 것 같소마는 靜子가 시집에서 돌아온後, 每日이러케 내시중을 들어주는 까닭으로, 나는 비릇오 家庭의眞味라는 것을 알았소……이집에 와서 몇해가 되지는……』하고 말을 끈더니 『이런 待接을 마다 본적이 없소……』하고 중용히 恨歎할새, 그의 목소리는 얼마간 쉼터를 낸다. 靜子는 元來女子라, 빌서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하야 고개를 숙인채 얼굴을 들지 못한다.

두사람이 서로默然히 마조안졌스매, 가을이 이때 깊혀, 숨은 커드람이(蟋蟀)소리는 더욱 사람으로 하여금 悲感을 느끼게 한다. 한참있다가 哲秀는 생각을 틀러,

『아, 참. 靜子한테 아죽도 여러가지 약이 가있는데. 자, 좀더이리 갖잡게 오오.』

七

哲秀는 부득히 靜子를 火爐것으로 갖잡게 안치고

『다른일이 아니라 오늘 韓慶男이 하고 저녁을 가려먹었소. 그런데 韓君의 말이, 自己다니는 會社社長에 黃富成이라고 하는 사람이——웨, 언젠지 新聞에 그사람들이 띄나지 안하

소……아, 참. 그새는 아죽 靜子가 외골잇슬새지. 몰로오!』

『네. 저는 제……』

『그렇소! 그러면 할수 없스나 左右間 그 黃氏네집에서 家庭教師를求하는 中이란 말이요. 그런데 韓君이 靜子를薦하고 싶다고 하는구려. 그러나 척시원한 약이가 아닌까닭으로 나는 不分明한對答을 해두었소마는. 그야 待遇라던지 其他凡節은 程度以上일는지도 모르겠지만, 그정안家庭이 말아나니까.』

『家庭이 말아나니, 웨요?』

『靜子가 그 新聞을 보지 아니했다니야 할수 없소마는 그야말로 참 말아니야.』하고 新聞에 낫던記事를 記憶나는대로 이야기했스니, 그要領을 말하건대, 黃富成이라는 者는 本來말할수 없시구 차한씨구려 장사로 出世를 하야 一代에 屢萬의 財産을 모은터이라, 實業界에는 果然一方의 雄將이라 하겠스나, 이러한 사람에겐 대개 한가지 조처 못한 버릇이 있스니, 甚히 色을 조하한다. 그도 或노는 재집을 데리고 잔을 한다던지 妾을 둔다던지 그쉴만하면, 當代의 攄商으로는 例事의 일이라 하야 容恕할 도리도 없지 아니 있겠스나, 이 者의 巧약한 버릇은 自己집에와서 일보는 사람으로서, 죽음얼굴이 免醜나한女子이면, 針母전 통자기전 반듯이 한 번은 건디린다. 그것도單한번, 만하야 두번, 세번도 하는일이 업고, 그後에는 必히 이를세고, 들췌다보지도 아니하는데, 그最初에 건디리는 手段으로 말하면, 無法하다 할는지 亂暴하다 할는지, 腕力을 쓰는 것이 常例요, 그레도 아니되는새에는 夢昏藥의 힘을 비는일이 있다 한다.

그리하여 그辱을當한 사람의父母親戚과 問題가 이러하나, 黃哥의 집에 專屬되어 그런事
件만 專門으로 하는 辯護士가 잇서, 언제든지 귀셔러진 兇惡으로, 호지부지 結末을 맺
게 하는 外道으로, 그러한 罪惡을犯하면서 도 이제 한 번도 裁判을 受안일이 없다 한다. 開明한
오늘날 天地에, 善에도 생가지 못할 이러한 事實을, 仔細히 말하야 들니고, 『그야 新聞記事라 다
少誇張한 點도 잇겠지. 그러나 그 이익을 設使 半은 거짓말』라고 하고 半만 믿는 다 할지
라도 늘 眞實이야 아니요 어쨌소? 靜子.』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가물생각이 잇소?』

靜子는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잇고, 이 말에 對하야는 어쨌라 對答을 하지 아니한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제 다 잔난의 말이야.』하며 哲秀는 唐荒히 激消하고 『靜子가
솔직한 것은, 내가 다 아는 터이니야, 다시 靜子의 意見을 드를 必要도 없지. 그當席에서 否
絶해 버릴가 했스나, 하도 韓君이 熱心으로 勸하는 것을 본즉, 이것이 必有曲折인일이란 말이요.
그 사람의 일이니야 必是 무슨 野心을 이리켜, 또 속 計를 算하라는지도 모르겠스나, 그
때에 넘어가서야 될 말이요. 그러나 그當席에서 斷然코 拒絕을 해, 不安을 주면, 그 사람의 일이
라, 아마도 眞實한 사람에게는 秘密히 洩달하기로, 드를 理가 잇소. 必然 나 업는 새에 와서 되다
재갈 縛겠지요. 그리고 보면...』하고 靜子와 對言을 마조 보면서 『그러치안소. 사람이 구차
안하! 무얼 나는 觀望하. 左右間 구차한 對言. 허, 허, 허. 나야 觀望치만, 靜子가 苦生을
바들터이지. 그런 外道으로 韓君에게는, 어쨌케 우를 碎물했스나, 길에서 吾 吾생각을 해보
아도, 별수 없구려. 結局 이 약이 아니 할재, 제 도 못되고, 이 약이를 하면 必然 가라고 할 것은 定

한 노릇이라. 그것을 靜子는 실라 하고, 나는 또 靜子의 말을 贊成하면 疑心에 疑心이 겹쳐
서, 또 一場風波가 날것은 免치 못할 것이니, 그리고 보면 또 母女가 들이 들어서 靜子를 복을 것
이라, 到底히 變이나 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이제 말하면 一生의 重大한 境遇니야, 靜子도 十分
決心을 가지고 어디까지 않지...』하고 말을 하는 중에,

『잔한가 마...』하고 靜子는 무슨 소리를 듯고 귀를 기울인다.

『무어요』하고 哲秀는 의심내여 묻는다.

『누가 온 모양이냐...』

얼른 알아채리자, 벌떡 일어나서, 피다지를 책 열어 제치매, 마루부남문에 이마 부딪는 소
리가 나더니 쿵쿵쿵 쿵 逃亡질치는 발소리가 안방을 지나 머리방으로 소리진다.....

八

피다지를 활짝 열어 노코 哲秀는 다시 제자리에 안저 김하 壽命語調로,

『이러니야 말이야. 이제 監獄所生活이지!』 이러케 사람을 侮辱할 수가 있나, 붙잡아가지고
무엇기는 쉬운일이지만 『아씨의 命을 이을지다』 그러면, 들이여 내가 낫이 또 死하지. 놀러가
고도 십지만, 집을 뛰여 두는 것도 넘려가 되여, 저씨 위질을 시키는 말이 있다. 어, 패심한 것!』하
고 怒한 눈으로 부름쓰더니, 다시 冷靜하게 自己가 스스로 自己를 嘲笑하는 것이 『그러나 이러
한 侮辱을 마드면서도 그레도 참고 잇지안하면 안될 八字야. 어보 靜子, 世上에 人事體貌

차라기처럼 어려운일이 다시 일어나려……』하고 눈을 찡긐하고 팔짱을 낀다.

이 모양을 보고 靜子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서,

『참, 아제는 불쌍하셔. 나는 아주…… 언니께서 웨이런일을 하시누. 前에는그런이가 아니었섯지만은……』하고 謝罪하는듯이 말했으나, 그말이 인제는 귀에들어오지 아니하는듯이, 哲秀는默然히 생각하고있다가, 한참後에 눈을 크게 찡긐고,

『응, 괜찮하! 내가 일단 참는다고 作定한以上에는 어디까지 참지. 참아서 사람의苦痛의 結局點까지 到達해보겠스나, 그러나 靜子야 이씨위집에서 참고있지아니하면 아니 될義務가 어디잇소. 이씨위집에 있서 이러한 侮辱를 당하느니보다, 차라리 韓慶男의말이 다행이야. 黃富成이 집으로 가라오?……』하고 순차게 苦痛을 내보았스나, 다시 풀이 죽어, 『그러키는하지만 그런 魔窟에 가기는 아모리 靜子라도 싹갯지. 또 나도 보낼수 도업고…… 그러라고 이런집에서 참고있서라 하기는 참아 薄情하고…… 아아, 지금내게 돈이 좀잇섯스면. 어니學校에던지 그學校寄宿舍에 靜子를 너갯스나, 그 돈은업고…… 아아, 어찌편조할가……』하고 여긐까지 恨歎해오매, 지금까지 헛수하야 光澤이엿던 얼굴에 별안간 朱紅을 띠부은듯이 발개지고 눈에는 異常한 光彩가 돌아 尋常치아니한얼굴빛이 되어가지고, 本心으로서 나오지안는 異常한우승을 씩씩 우서가면서『나는, 어쨌지 머릿속이 混亂해서 精神을 차릴수가업시되잇소……』

靜子는 참다못하야 『아제, 제발, 그우에 더그런 넘려는 마셔요…… 차라리, 인제는……』

……차라리 그 黃氏네집으로 보내주셔요……저는 인제 아조 決心을했스니……,』
『글세,』하고 또생각을한다.

『제발 그래주셔요. 그러케 애를 쓰시면 제가첫재……』

『아니, 내가 무슨 애야 쓰오만은.』하고 壽命을버려온 웃는얼굴을들여, 『그래서 靜子가 가버리면 나도 困難하지,』하고 또 고개를 푹 숙인다.

『그러케 말습해주시면, 저는 인제 어쨌야 조을지……』하고 이도 또한 壽命氣分에 찢려드러간다.

壽命두름이 덧업지 우두하니 안졌는데, 별안간 씨!각하고 大門소리가난다. 그소리를들더니, 靜子는 섣뚱 얼굴빛이變하야,

『아!그 언니께서!……』

하고 엉겨주춤하야 허둥지둥하더니, 벌떡 이러나자마자 門을 벌컥열고, 뛰어나간다. 哲秀는 平常時에 보랴볼수업던 靜子의 荒唐한 態度를 諦히바라보고 안졌다. 果然이때 外지중용하던 마루와 안房이 별안간 씨들석해지더니, 얼마있다가 안房에서 전니房으로 向해오는 한사람의 발소리는 들림업는 그다. 이를 생각하매 불현듯이 不快한생각이 가슴에 활막하여, 哲秀는 전의여 낼수가업는듯한 모양이다.

안房안으로 드러온이는 이러케 哲秀에게 살인을맞는 그사람이니, 即그의妻되는 英子라. 얼마간얼굴이 감으족, 족한데 모호로살썩, 흘겨보는눈에는 힘이잇다. 品格이업는대신

에輕快하야, 밋거리 조하하는者는 아오를제쳐노코 이兄을 取할는지도 모를만한 人品이라。스물의 品性이라하면 나희에比하야 능계차렷스나, 그러나 活動寫眞구경가는 차림치리라고는 밋지 못할만치 훌륭히차린衣服으로, 차마를타치고 火爐경호로안지매 온은한香氣가 房안으로돈다。

『언제 드려오셨서요。그런대 어되다녀오셨서요!』

哲秀는 無意한얼굴로『韓慶男君이 學校에를들렀서。 그래서 저녁을가치먹고왔지。』

『밋지가랑해서 집에 오셨서요!』

『글세, 밋지가랑이던지。해가진후 얼마안되어서지。』

『그래 그제부터 이제까지 靜子를데불고 무얼하셨서요?』하고 칼로버이는듯이 붓고, 袂안히남편의얼굴을 쳐다본다。

哲秀도 불스름이 그의얼굴을 마조보면서『이악이를했소。』

『이악이가 띄 길기도합니다。』하고 시침이를썩세이고 비싼다。

九

『무슨이악이가 그리케잇섯서요?』하고 英子는 다시 남편을 向하야『익콇時부터——여덟, 아홉, 열, 열한時』하고 손가락을 꼽아가면서『네時間이나 되지안습니까?』하고 가만히얼굴을 노리고본다。그러나 哲秀는 다른데를向하야 도모지 이악이對手가 되지아니함

으로, 전이焦燥하야『네時間이나 젓헤 붓잡아노코……무슨이악이가 그다지 만났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은, 下人불상도잇지요。』

『下人불상이 잇서?』하고 哲秀는 돌아보면서『異常한말도하오。靜子로말하면 이편의 女의동생이 아니요。이편의 女의동생이고보면 말하면 내게도 女의동생셈이라, 男妹가안저서이악이하는데 下人불상이 사납단말이 원말이요。』

『누가이악이하지 말사사고했습니까。』하고 성이나서 이마(額)에 푸른혈줄을세우고 말만비껴아서 恭遜히한다。『그리치만무엇에던지 程度가잇지요。집안사람이 다나가고 집이 비엿는데, 아모리 말로는 男妹가트니 어찌니할지라도 네時間이나 다섯時間式엮헤다 불리안치고 우렷다, 우섯다, 잡아다넌다, 슬엿다……』

『누가 그런말을해?』하고 哲秀가 눈을 싸부름뜯죽,

『누가말했던지 그거야아실것잇서요。』하고 英子도 險相스리운눈을뜯는다。저편에서 싸움을하러뵈면 이편에서도 避하지는 아니할形勢이더니, 哲秀가 생각을 들너 꼭참고, 아모말업지안졌스매, 또다시 前과가리 일부러恭遜한말로 비껴는수작을한다。『그야誤解도잇겠지요。설마高等敎育을바다서, 學士의地位에계신 어른께서 그런義에 버서나는 짓이야하질理가 잇겟습니까。그러나 世上에는 모도 이편과가리 그리케 집잔코 知織잇는 사람만잇는게아니니까요。아모리 말로는 男妹갓다할지라도 너무 사랑하는 程度가 過해서男女間에 體貌가 업서지면, 거기 異常한關係라도……그야 업겟서요。잇슬리가업지마는

잇는듯이 誤解를 마드니야 말습니을시다. 이 편에서도 설마 지금地位에 滿足하고 實理는 萬無하지겠지요? 지금부터 크게 發展하시라고 하시는 量만이 萬一 그런말이 下人입에서 새여서 재미업는 評判을 뜻게 되신다하면, 그것이 前途에 妨害가 되시지 아니할가하고—女子의 좁은 所見이라, 그것이 애가 씁니다.』

『그렇습니다.』하고 哲秀는 일부터 疑心을 켜고 『그러면 그런 念慮는 實必要가 업겠지요. 무어 世上사람이 모다 그러케 바보뿐이 아니겠단, 下人들의 말을 信用해가지고 다른사람의 潔白을 疑心하는 그씨위 어리석은 者에게는, 疑心하라 하면 疑心하라고 내버려두기로 相關업지. 萬一—이 그런 者의 말대우를 하려면, 比喩말할지라도 이 편이 每日에 活動寫眞에 가서 놀다오는 것도……』

『이 약이 증상을 없히 안되잇습니다마는, 제가 늘고 싶어서 活動寫眞에 가본적은 업는데요……』

『그렇습니다.』하고 每日 저녁에 나드리가시는 것은 그것은 무얼 하려가시는 것인가요.』
『어머님께서 가고 싶다 하시니야 老人한분만 가지게 하기는 어찌서 그래서 피시키고 가는 것인데, 그제 그러케를 립니다.』하고 천연덕스럼 재빨리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

哲秀는 그 얼굴을 아조 알보는 듯이 맛당치 못하게 쳐다보다가 비웃는 우습을 씌우고, 무손말을 하라 할지음에 福童어미가 어느 틈에 와서 房門을 열고,

『아씨 이편지냐.』

『오오, 참. 이리주게.』하고 편지를 받는다.

『자리는 벌써 다 알아노하십니까.』

『응. 그러면 자네도 고만하게.』

福童어미가 첫눈질을 하야 主人의 얼굴을 흘금흘금 바라다보고 물러간後에,

『이것은 약가 왔다는 데요.』하고 어미까지 비웃는 수작을 變치 아니하며, 편지를 남편앞에 노려니, 『福童어미가 이편지를 가지고 오라니야, 어쩔일인지, 암씩을 타서서 別안간 소리로 『구구나……』하고 약을 쓰시드랍니다.』하고, 그제 놀래 逃亡을 천하담으로 편지를 못되리 못했답니다.』하고 피뻘하게 얼겨댄다.

『그렇습니다.』하고 천연스럼 재, 『福童어미도 패심한년이지, 편지를 가져오는 데 구태발 소리 업시을 必要도 업지만은, 말소리를 한대고 가만가만 기어오기에, 必然부순 必要가 잇서서, 엇드러 온 줄 알았더니, 그런게 아니던가요.』하고 슬쩍한해의 얼굴을 본다.

『그런게 아니던가? 하시니.』하고 억제로 우서가면서 『그런일을 내가 알까닭이 잇습니야.』
『그렇습니다.』하고 哲秀는 코로 말을 하면서 편지皮封을 복쓰더 한참 편지만 되며려다 보고 아모말도 아니했스나, 實相은 어찌서 온편지인지, 무엇이 써여잇는지 알지 못했다.

哲秀가 언제까지 되도록 편지만 보고 말對手가 되지 아니함으로, 英子는 나중에 심심해져서 壁缺이러나 房門을 열고 나아갔다. 入室房을 보니 아죽도 燈불이 켜잇는지라, 別안간 그따다지를 확 열고 되려다 본즉 靜子는 자리장에 이마를 대이고, 치마르눈을 가리고 안졌다.

『무엇하고 안졌니?』하고 부르되 對答이 없다。英子는 그 말없이 자리장에 기대안진 아
오의 연개를 한참 노리고 보더니,

『아이고 異常스리워라! 울고 안졌다, 재가.』하고 그대로 회 안房으로 드러갔다。

十

산속산속한 밤이었다。哲秀는 이불로 몸을 싸고, 눈을 싸 감아 보았으나, 아즉 結末이나
지 못한 靜子의 處理件이 가슴에 걸리어, 日來로 不寐症 있는 몸이 더욱 잠잠수 없서, 또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막히면 슬쩍 눈을 누어, 壁을 向하여 긴 한숨을 쉬다가, 겨
우 새벽머리가 되어, 잠깐 잠이 들자마자 또 異常한 惡夢에 가위가 놀녀, 씹짜 눈을 깨
본즉, 全身이 삼에 저저 독덜피와 가슴이 찢은 찢은 해서 말할수 없시 心身이不快하다。고
개를 들어 본즉, 벌서 窓에 비치는 해발이 세느진模樣이라, 머리맛해는 時計를 볼必要
도 없시 普通째보다 지내치 않은 알겠스나, 께해서 자는 안해는 늘 보아도 잠꾸러기라, 아즉
눈을 생각도 아니하고, 저편을 向하여 누어 자는 꼴을 볼새 못득 어제밤일이 생각이 나서 어
찌라 말할수 없시不快하다。

그러나 생각을 들려가지고 이러나서 못세수를 하고 뒤房으로 가보니, 丈母는 벌서 아침을
먹은듯, 眼鏡을 의지삼아 新聞을 군데군데 썩여 읽다가, 哲秀가 人事를 한즉 眼鏡우으로 흘
문보고 무어라 우물우물하는 그 눈, 그 눈은 亦是언제나 가른 눈이라, 特히 오늘에 限하여 흘려

본바는 아니지만 그 눈을 보면, 밝은 하늘도 흐릿듯, 哲秀는 늘 氣分이不快해진다。그러키는
하나 데릴사위로 드려온後 單한변이라 도 이와 直接으로 衝突을 한일은 없다。表面으로
는 장모, 나라, 하고 어디까지 아름다운 關係이나 婚姻한當時부터 거기서로 異常한間
隔이 있다。間隔이 있는 까닭으로, 이 老人에게 말없이 억지로 지은 우습을 맞는 것이, 안해의 正
面攻擊보다도, 무엇이 더 苦痛이다。 그것이 哲秀의 社會上地位가 大略히 定해된 近來에 와서
더욱甚하게 되어, 얼굴을 맞對하는 것까지도 苦痛을 느끼는 정도가 되매 或가다가는 집안일이 마
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도 안해의 고집센 뜻이 아니요, 단지 頑冥한 이 丈母한 사람이 있는
때문으로 생각해야, 이에 對對하여 어떤지 百年의 冤恨이 있는 듯한 마음이 생긴다。虛心으
로 생각해보면, 이는 當치 않은 일이고, 家庭의 재피업은 第一原因은, 무엇이 내가 이 丈母
에게 對한 이 疎隔한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哲秀도 반듯이 생각지 아니하는 바는 아
니나, 그러나 面前에 丈母의 주름살 잡히고 얼룩얼룩한 險相구진 얼굴을 보면, 그 저까닭업
시不快한 생각이 별안간 가슴에 북바쳐올려와, 한참동안 자리를 가치고 잊기도 실패라。

오늘은 特히 슬픈생각이구나, 억지로 시침이를 빼고 거기 노흔 衾床을 바들째, 靜子는
얼른 귀를 들고 드러온다。 맞업는 밤을 물에 말아 쓰적 쓰적 하면서, 오래 동안 말없이 있는 것
도 어떤 듯해서, 누구에게 指名하여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 졸려! 어제밤에 넘우느저서.』

하고 無心히 말한 한마디가, 말하고나 본즉, 거기 異常한 그림자가 부러워서, 靜子는 씹짜

놀란 듯, 곧 정호으로嫡母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老人은 이 말이 커에 드려 오지 않는 듯이 모르는 체하고 잠잠히 新聞만 보고 있다. 哲秀가 수하락을 노코 이러서, 옷을 벗구어 입으라고 장지웃間으로 드러갈새, 洋服을 개이고 쓰어내고하는 哲秀의 洋服과, 라지는 늘 靜子가 하던터이라. 뒤쉴차 장지웃間으로 드러가는 것을, 老人은 흘끗 돌아다 보더니, 별안간 注意됨이 가 되어, 귀를 기울이고 드러나, 장지웃間의 이야기는 소곤소곤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요, 內容은 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다가 그 이야기의 짜끈치고 이편으로나오는模樣이라, 老人은 씁쓸놀라 무릍에 노릇던 新聞을 집어 급히 또 다시 되미러 보고있스매, 哲秀의 얼굴이 흘끗배치고 「다녀오겠습니다」한다. 그새 老人은 처음으로 新聞紙에서 눈을 떼이는 듯이 고개를 들어 眼鏡우으로 쳐다보면서 「갔다 오게。」하고 또 다시 新聞우에 視線을 쏘려 트리고있다. 마르듯 지나가서 人事를 하고 드러오던 靜子가 다시 돌쳐서 「여보세요, 잠깐……」하고 哲秀를 다시 불러 무어라고 귀속이 약이 하는 것을 보고, 老人은 다시 고개를 번쩍 들었스나 그새는 임의 이야이가 다 끝나고 靜子의 목소리로 다시 「그럼 다녀드려옵시요。」하는 말이 들린다. 老人은 그 말을 듣더니, 무슨 까닭인지 입을 썩죽하고 코웃으로, 흥, 흥하며 웃었다.

이새에 안房에서 「福童아! 福童아!」하고 宏壯히 부르는 소리가 난다.

靜子는 종중 자를 처 「福童이 머가 지금 마춤 심부름을 갖는 데요……」

「심부름을 갔스면 갔다고 얼른 말을 해주어야지. 남은 목청이 터지도록 불러는 데。」

「정들니지가 안하셔 그랬서요. 무슨일이 있섯서요?」

「답배불말이야!」하고 중얼대며 「그것도 모른답!」

「네。」하고 조용히 靜子의 그림자는 뒤入房으로 스러졌다.

十一

學生들은 모다 놀랐다. 平常時에는 복뒤에서 잡아쓰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되하고되하야, 머리끝이 압힐만치 親切하던 哲秀의 講義도, 그날은 그疎慢한 품이란, 或가 다가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不得要領의 이야기를 하는 일도 있졌다. 그리하여 講義가 끝나매, 모다 이상한 얼굴로 서로 보면서 「哲甫」가 오늘 무슨 까닭이 있는 게로군하고 이상히 느끼었다. 그리나 이 상히니 眞事實은 그뿐만 아니라, 哲秀가 講堂에서 나온적마다 그길로 尹庶務室에 쏘차드러가 거기있는 電話를 걸나고 애를 쓴다.

昔日에 卒業論文 賃銀論으로는 果然先輩博士들로부터 금 혀를 내두를 만치, 놀래게 하던 哲秀의 頭腦로도, 한 불상한 靜子를 전질手段에對하야는, 어제밤 원밤을 세여가면서 생각을 하고도 거의 아모結末도 짓지 못하고, 焦悶한結果 窮策은窮策이나마, 爲先 慶男이가 와서 나불나불, 그事實을 다 이야기하지 안도록 防禦할 수밖게입다생각하였다. 그러면 防禦한後에는 어찌하겠느냐하면, 그後의處置에對하야는 自己亦不分明하야 아주 어찌라생각하야 定한바가 없습나, 左右間當面의急務는 이밖에없다생각함으로, 오는 것을 막는 길은 내가 차

저감에잇다하고. 다만한마디『가는길에 들르겠네.』하는말을 慶男에게傳하고저하야, 이
러케다른사람들도 異常히녀길만치 자주 電話압호로 드나드는바이나, 恒常 公교히 電話
가 通치못한다. 이편에서아모도 電話하는사람이 섬는때에는 저편이『이약이하는中』이라
校直이에제 付托을하고 아조단단히 事實까지써주어, 自己대신으로 電話를시키라한즉, 그
다음 休憩時間에는 校直이그림자가 보이지아니한다. 모든百事가 이러케 어긋나, 생각
대로되지아니하매, 焦燥하야 말을글르나, 그러나 어찌하랴해도 어찌할수가없다.

午後가 되어 지오 通話를 하게 되매, 셀것가리 깃버하얏더니, 慶男이는 出入했다 한다. 그 러면 오들은 또 다시 會社에 다녀가 지 아니 할 리 이 나 하고 체치 무른 즉, 자세히 알 수 있 다 하고 또 무엇 이 라고 말을 하 기는 하였 스나, 체 자세히 듯기 前에 電話가 倅 倅히 저바렸다. 電話筒에 서 세러진 哲秀는 倅을 것가튼 얼골로 敎員室에 들어와 倅인 交椅에 倅씩거러 앉 셔니, 두 다 리 를 倅씩 倅고 팔장을 倅체 倅로 작바질 듯이 되어, 失望과 落膽을 한숨(太息)에 어울려 天井으로 내 쫓는다. 倅해안 倅면 同僚의 한 사람이 보고 『宋君, 왜 무슨 근심이 있나?』 하고 異常히 녀 기매 『근심은 무슨 근심!』 하며 무 짓는 듯이 對答을 하고 倅진 듯이, 別씩이려나 가 넓은 帽 子를 倅씩 倅고 倅벽 倅벽 門 倅트 나야 간다. 인제는 맛흔 時間도 다 하고 단지 倅에 돌아갈 일 倅게 업 스나, 이 러케 門 倅트 나 온 것이 무슨 目的이 잇는 바는 아니 었다. 그저 焦燥한 마 음에 倅히 안 倅을 수가 업는 倅답이 었 스나, 一旦 나 온 것을 다시 도로 드려 갈 수도 업고, 焦悶해 하 면 저도 무엇인 지 보이지 안는 힘에 倅리는 듯이 倅으로 倅하야 四五十步나 가다가 선뜻 눈압

해세이는 四街里의 自勸電話室에 ㅅㅅ했다. 한참동안 우뚝하니 무슨생각을하더니, 얼마간 蘇生된 얼굴빛으로 그 櫃속으로 ㅅㅅ드러가자, 곧밖그로돌니는 그소리를드른즉, 그래도 ㅅㅅ 잊지를못하고 慶男이를부른다. 그러나 업는慶男이는 亦是업는지라. 그러면 萬若들이오 거던하는 條件下에서, 이리하고 이리한사람이 저녁에 차저갈터이니 집에서 기다려달라 고하더란말을 부디 잊지말고 ㅅㅅ傳해달라고, 성가실만치 되하고되付托을한後, 櫃에서나와 그길로, 桂洞慶男의집을차저가 거기서도 亦是下人에게 떼면이나 당부를하고 ㅅㅅ그로나 와 취하고 겨오한술을쉬었다.

인제는 이만하면 念慮업다. 外面에 對한 防禦策은 다 되었다 하고도, 또 다시 念慮되는 것은
自己집안 光景이라, 靜子가自己업는 동안에 들볶기 지나 아니 하나 하고 그 일을 생각하며, 일업
는 몸이 것만 公연히 마음이 燥急해져서, 人力車를 불러 타고 敦化門 앞까지 모라 오다가, 뛰
여 내려 農圃안 골목으로 다름길을 하여 술이 락락 막혀 가면서 自己집門 앞까지 와 본즉, 精하
게 써 손自用車인 듯한 人力車 한 대가 門 앞에 노혀 있는데, 말쑥하게 채워진 車夫는 主人나 오기
를 기다리다 못하여 人力車 발거리에 거리안저 精神 업지 잠을 잔다.

그러나 哲秀는 마즉도 지기까지는 생각지 못하고 누가 왔나 하고 뒤느린 생각을 하면서, 우선 안으로 들어가, 것지도 아니했지만 疲勞한 허리를 퇴마루에 털썩 걸치자.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靜子가 행주치마에 손을 써서 곁편서 皇唐히 조차나 온다. 어이 惻隱해라, 꺾기다렸겠지. 『인제 들어오셔요』하는 늑하던 人事도 다 잊어버리고,

『아재! 韓慶男氏가 와계세요.』

『慶男이? ...』하고 哲秀는 눈을싸부름써 靜子의 얼굴을 보고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나마 『모도를렸구나!』하고 絶叫하더니, 言辭와 悔恨과 失望과 罔知所措, 이들이 一時에
환근하고 얼굴빛에나타나』그러면 벌써나왔겠구려, 그이약이가?』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드로라한다.

『네. 그이약이가 나와서, 저는 아조죽을번해서요.』

『그래서 대판질 어찌케되잇소?』

『인제는 가기로 作定이되잇서요.』하고 惘然히 고개를숙인다.

그可憐하고 惻隱한 양자를窺보자, 哲秀는별안간 가슴이턱턱막히는듯이 『누가定해.
패센하재! 남의意見도 듣지안코, 獨擅으로하는것도 分數가잇지...』하고, 뒤에서 靜子
가 唐皇한목소리로 무어라하는것을 듣지안코. 猛然히 안房으로向하야들어간다.

十二

지계門을벌쳐열은 哲秀의態度는 尋常치아니하얏섯다. 怒氣를섞은 무서운눈으로 座中
을돌아보며 慶男이를 上席에안치우고, 母女가들어 한창待接을하는판인模樣이라, 杯盤이
狼藉한中에서, 빚나는세사람의 눈이一齊히 이편으로向한다.

그중에도 壁櫥을등지고, 여간손이아니면 내어맡지아니하는 紫朱모본緞보로우에 죽으

판몸을 크게버리고 안즌 慶男이는, 벌써여지간히 醉한模樣이라, 興난微笑가 아즉도남아
잇는행,행금하는 눈을,가느스름하게 억지로쓰고 愉快한듯이 哲秀를보아 마지면서 『아
아!』하고 忌憚하는 눈흔목소리를 질러『거짓말大將. 인제들어오나.』하고 爲先여, 片를 썬
거노려니, 哲秀가 不平한氣色으로 말없이 자리에 안즌 그압해가졌던醜을 내밀며『자
酒일제.』

『웨!』

『왜란 다무언가! 참 자네가리信用못할사람이 다시업서. 어전제 그러케擔保를 해노코
이제까지 當者에게 이약이를 하니했다니, 사람이 과가막힐노릇이아니람.』

『거짓말애요.』하고 정해안졌던 英子가 가로차서『어제밤안으로이약이 다냈이났답니다.』

『그러나 앓가 靜子가...』

『아이그, 韓主事도 띄고지식하시여. 그것이 죄다 거짓말이야요. 무엇?』아즉그런말
숨을 못들었서요.』란 다 무었임니까. 벌써 어제저녁에 다듯고, 그러고저.....
내가 다알아요』하고 험웃 哲秀의얼굴을 흘겨본다. 그러나 그態度가 어제와가리 그러케
변하지는아니하다.

『事實그런가?』하고 慶男이는 哲秀의얼굴을 되돌려보았스나, 哲秀는 아모말없이 默然
히잇다.

이제에 한다리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고잇던 鳳子夫人이 번정거리는듯한 一種말할수없

는 不愉快한 우습을 생, 웃고.

『설마 英子가 말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겠지요. 哲秀氏도 다 그가운데는 여러가지 집론 생각이잇서서,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에겐 이약을 아니한 것이겠지요마는……』

『아니야요, 내 말이 옳마저요』하고 英子는 역시 慶男이를 對手로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늘 그렇걸. 돌이 소곤소곤 귀속을해서 다作定을 해노코야, 비릇오 우리들에게 알리지. 그도 알날새도잇고 아니알날새도잇지요. 역시 韓主事와 가리 秘密히 만흔 사람들이 나야.』

『어이구 가만히 갑시오!』하고 慶男이는 두손을내밀어 自己에게로 불동이 전너오는 것을 막으면서, 『韓主事가 다는 그말을 생실텔말을 시다. 남드를상사남게. 모르는 사람은 고저듯습니다.』

『해, 해,』하고 가워엮게우스면서, 『그러치만 그런말을하시지만, 韓主事에서도 아조술 秘密이 업스신 어른이라고는 할수업술걸이요?』하고 이상스리히 말뜻을 물어말한다.

『어이구 천만에말습이지, 내야 公明正大하지요. 그런새답으로 自然히 內外情理도 조치요. 늘 日曜日이던 돌이 손목을 맞붓잡고 漢江이나 淸涼里로 散步만 다닌답니다.』

『암만, 그러시다 생이겠습니와, 그래서 저언제다 방울……』하고 눈으로우스면서 『一件이發覺이났을새는 夫人께 코가쌍에다도록 謝罪를하고, 그나 그생인가 웃감을써온다, 活動寫眞求景을 되시고간다……』

『어이구 그만습시오……』하고 종작업는 큰소리를질르면서, 머리를싸고 조! 쏘매져서, 가만히 『그一件을말습하면 다시두마디 할말이업습니다.』

『허, 허, 허!』하고 鳳子夫人은 사나히우습을 우스면서 『行實이고약한사람이란 어되를 가던지 고개를날이업군.』

『어이구, 아즈퍼님새서하지……』하고 눈이동그래서, 『이러케젊은이와 老人이 두분이 들어서 攻擊을해대시는데는 當할수가업습니다그려.』하고 고개를살테살테 내놓는다.

『또큰우습소리가 낫다가 그것이 쓰치자 鳳子夫人은,』

『어이구, 내가이러케 안졌습수가업서.』하고 이어차, 하고 이러난다.

『웨이러케 벌서 이러나세요. 자, 한齣만 더잡습시오.』하고 慶男이가 自己압헤노혔던 술을 한쪽음에꼭마시고 일들을 생그러가면서 齣을내밀매, 老人은 손을흔들며,

『인제나는 더할수업서. 그것은 代身으로 韓主事が잡수.』

이새에 英子는 말도업지 주전자들을 한齣을 가득히부어 놓는다.

『어이구!』하고 慶男이는 눈이동그래서 齣과 英子의 일과를 번갈라쳐다보면서 『이건 사람을 골날라고 그러십니까그려.』

英子는 우서가면서,

『웨요?』

『그러다가 醉해서 오줌이나싸면 어찌케합니까.』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허, 허, 허해, 해, 해』하고 우습소리를 합하여 두 사람은 재미가 있는模樣이나, 哲秀는 죽음도 재미가 없었다.

十三

哲秀는 實로 재미없었다. 자리에 앉을새에 慶男이가 한盞부터 주었슬뿐. 그後에는 들켜 보는 사람도 없스니, 그것은 오히려關係없다 할지라도, 들이 서로 앉아서 석에當치 아니한 이익을 재미있게 씹, 독거리면서 靜子의 일은 이준듯이 아모말도 쓰집어 내지 아니한다. 나를 對할새에 다른것은 다且置하고라도, 爲先事實의經過를 報告하여 同意를求할것이 어늘, 사람을 蔑視해도 分數가 있지! 하고 지금은 丈母도 나가고 업서 別로이 거리질것 업는 哲秀가, 不平히 생각하는心事를 顯著히 얼굴에 나타내여, 가만히 自己妻를 노려보다가 別안간.

『그래서 靜子의 일은 어찌케 되었단말이요!』

이말에 두 사람은 破興이 되어, 英子는 무엇이냐 이리버린듯한 얼굴로 말거니. 이편을 向하여 『靜子의 일이요? 저쪽에서 씹 재촉을 하신단 말씀으로 來日아 출한으로 靜子가 韓主事宅으로 가면 韓主事夫人께서 데려다 주시기로 했서요.』

『그것이 오히려 便할듯해서』하고 慶男이도 말찬대를 하여 『黃氏네 집에서 이씨까지 있

던 사람이 간후로 韓, 英, 子 재촉을 한다네.』

『누가 보낸다고 作定을 했서요.』하고 哲秀가 慶男이는 두어두고 妻를 同하여 눈을 眈부름 뜬다. 英子는 거짓말도 아닌것처럼 삼씩늘래가면서 『에그머니, 웨이편하고 靜子하고 두분이 作定하시지 아니했소.』하는말에, 哲秀는 이상한듯이 고개를 기우리며 妻의 말을 되집히,

『나고 靜子하고 들이서...』

『이거 웨이러케 시침이세는 수작을 하셔요! 이편에서 맨처음에 擔保를 하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어제밤에... 내제는 아모말씀도 없섯스나, 靜子에게는 그 이익이를 하셔서, 그새 다가지로 作定된일이지요? 그래서 앓가 靜子를 불러 무려보니』아재씨서만 가라시면』하고 冷笑를 하면서 『가겠서요』하두군이요.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이익이니, 무어가 무엇인지 사연을 알 수가 업스나, 대강 짐작컨대 그런것이거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或내 짐작이 틀렸나오.』

『그러면 靜子가 가겠다고 했구려?』

『네, 내제는 그리두구면이요. 웨이편세는 그리케 말하지 아니해요?』

『나는 아즉 도모지 이익이를 아니했스니까, 그런말은 몰라도.』

『그러십니까.』하고 冷笑를 하기는 하나, 그래도 어제와가리 그리케 毒氣는 업다. 慶男이는 別안간 天井을 우러러 큰소리로 웃더니, 우습이 웃나자 『참으래야 참을 수가 업네. 이사

람이 무슨 병이 들면 모양이로군。」

『세말씀이올시다』하고 英子는 다시 저편을 向하여, 「自己들이 議論껏 다가가기로 作定을 해노코 누가 作定을 했느냐고 묻는 사람도 못는 사람이 저!」

이와 가리 몹시 비췌음을 바드면서도, 哲秀는 惘然히 말한 마디도 못했다. 거울을 되미러 보다가 제 放氣에 제가 늘레니 보다도 더 멧거리가 업서, 自己亦自己의 한 일이 하도 싱거워, 무어라 할 말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妻의 誤解도 無理가 아닌 듯하다. 果然自己가 慶男이에게 擔保를 한 양으로 말해는 것이 事實이요, 또 靜子로 말할지라도 어찌케 하겠느냐고 무를 때에 或은 가리라고도 했을 것이다. 가고 싶지 아니한 것은 못지 아니해도 알겠스나, 실라고 拒絶한 후에, 내가 또 여러가지로 구찬음을 바들 생각을 하면, 靜子의 몸으로서 그러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업섯겠지. 그것은 어제 말했듯으로도 容易히 想像할 수가 잇서, 지금 다시 疑心을 낼餘地도 업스나, 임의 그러케 말해노하버렸다 하면, 인제는 내 힘으로 자랄 수가 업다. 제 말 그 말을 하지 안케 하라고 오를 하로 동안 焦燥히 애를 쓴 것이 잇것만, 인제 이리케 된以上에는 할 일 업다하고 斷念의 눈을 감기는 하나, 절통한 생각에 五腸이 뒹굴어오는 듯하다. 이態度를 보고 두사람은 자미잇는 듯이 살잔이 얼굴을 마주 보며 웃다가, 慶男이가 큰소리로

『여보게, 여보게. 웬생인가? 精神을 반죽해리게. 무얼, 그러케 생각할거리가 무엇이냐.』

哲秀는 너지 업시 눈을 뜨며 『아니. 무어,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順序가 錯雜해서 도모지 알수 업게 된 아담으로……』하고 나오는 줄모르게 제절로 한숨을 쉬인다.

『三段論法에는 드러맛지를 안나?』

『허허허.』하고 의체로 꾸어온 우슬을 우스면서, 『이어차』하고 몸이 묵어운 듯이, 이러나

『내 옷을 갈아입고음세. 洋服은 거북해서.』

어슬렁어슬렁 나아가는 哲秀의 뒤그림자를 바라보며 두사람은 또다시 얼굴을 마주 보고 살췌이 웃는다. ㉞

十四

나중에 英子는 그래도 작은 목소리로,

『韓主事! 地形便도 좀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저는 아조 참 못살겠서요. 늘 저 꼴인걸. 성년일 끝로 원終日 머억머억이 안저서 남이 或것해가서 무슨 이익이라도 전네면, 구찬어하는 것가리 썩도라 안저버리지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點이 잇거던 말을 해달래도 말도 해 주지 안코……내가 필연 소박을 마진 것이야요.』

『무얼, 本來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요.』하고 그에 對하여 慶男은 잘 말대수를 아니한다.

『아니야요, 썩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萬一天性이라고 하면, 뉘게 된지는 態度가 썩가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컨만 사람씨라서 대상부동이 지요! 아주 별사람가튼걸이요.』

『그래요? 나한테는 늘 그런態度인데.』

『그것은 韓主事가 모르는것이요. 집에 學生들이 늘 놀러오지요. 그새 보면 어찌케 저 리케 靑山流水로 말을잡하나하고 이상스럼게 녀일만치 이악이를잡하고 아조興이 나지요. 집안食口中에도...』하고 잠안躊躇하다가 『靜子에게 對해서만은 다르답니다...』

『마음에꼭 드는가보다 그러. 그는나도 대강 짐작을합니다만은...』 벌써 되어나아난나?』하고 입을병그레하며 웃는다.

『글세 그도알수는없지만...』하고 한참동안생각하다가 『단지한가지 이상한것은, 그러면 靜子가黃氏네게로가기를 슬허할것이 아닙니까? 그러것만 그러치도아니한 模樣이니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편에서는 그러케 생각지도안는, 말하면 의쪽사랑인게외다그러.』

『아니요, 그러지도안하요. 靜子쪽에서도 입막게 내여서 말은아니하지만, 마음으로는 必然어찌케 생각을하고 잇는 模樣이야요. 아암그런證據가만하요.』

『그래요? 그러라면 도모지 같피를 잡을수가 업소이다그러. 아니 대대 所謂學者란것은 속을알수가 업서.』

『참말 속을모른다면모든다하기로 그러럼 속모를사람이 혼치가안올것이야요. 전에는 그러지도안했것만, 잇재서 저리케 되엿슬까요?』

『글세 變하기는 어지간히變했서요.』하고 不知中 次次 넷날일이생각나는듯이, 『내가宅

에서 弊를세치고 잇슬새까지도, 첫재저리케 陰鬱하지는아니했지요. 물이 다 하나도 지지 안흐라는 고지쟁이라, 생긔하면 씹을해가지고宅 여러분께 弊도픽세치일이 만했섯지요.』
『참, 그러섯지요.』하고 방글방글 해가면서 『韓主事께서도 그새는 픽 잔난軍이시더니! 왜 그새 萬壽聖節날 저녁에 藥酒가잔득 醉해드러오셔서, 나를 북장고 苦生을 시키신 일이잇섯지요.』

慶男이도 방글방글하면서,

『그걸 입새써정 치부를해두섯서요?』

英子亦 우서가면서,

『아, 그러면 그걸 이저버려요? 내가 그날저녁일은 一生 두고 이저버리지 안올걸... 憤해서.』

『어이, 무서워무서워. 잇전지 요새 생긔하면음, 살이잘나더니, 인제생각하니야 英子氏가 그憤푸리로 아마 내심, 전양에 일곱마디를묵거, 파부드신게외다그러.』하고 입으로는弄談미적하게하나 實狀속마음으로는 多少부끄러운생각이잇는 模樣이다.

그러나 英子편에서는 아조尋常스리히, 재미잇는듯이 또다시 그말을되푸려하야,

『내가 一生 잊지아니할걸...』

哲秀는 솔직이 안방에서 나와 가만히 뒹누르니 房障子門틈으로 되려다 본즉, 丈母는 부엌에
를 내려가는데 그 틈자가 보이지 안코 靜子가 혼자 밧미 床을 옮기고 있다가, 홀쭉보고,

『아재, 저 녀 床이 너무 저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못가져가 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나는 저 옷을 가탁하고 싶는데 옷이 되잇소?』

『네』하고 靜子는 별색이러나 兄夫것을 솔직지나 옷을 衣櫥앞으로 가는지라, 哲秀도 또
차 글로 드러가, 차차, 차차, 개여 노흔 平服을 내어주는 靜子의 얼굴을 훑어보며,

『어보 靜子. 靜子가 가고 싶다고 했다는구려!』

하고 귀엽습니 말하매, 靜子는 별안간 고개를 꼭 숙이며 『아재씨는 未安하지마는, 제
가 이르고 잇스면 늘 걱정이 곧 일새가 업슬터이기에……』

『그는 알어. 靜子의 마음을 자알 아요.』하고 連해 고개를 쓰색 쓰색 하면서 『靜子의 形便이
되고 보면 그러케도 생각이 들것이지. 그러키는 하나 내 걱정이 곧하지안는다고 靜子를 버려
둔대서야 첫째 도라가신 丈人에 對해서, 내가 罪懐한일이 아니요?……그러나 인제는 어찌
케 하라 해도 할수가 업구려. 어찌케 할수가 업서』하고 매우憤하고 섭섭한듯이 되잡혀 말을
하더니 『인제는 할일업제 되엿스니, 그러면 左右間 試驗條로가 보요. 그래서 萬若두손
재미업는일이 잇것던 곳다시 도로오도록 하요.』

『네』하고 靜子는 고개를 숙인다.

『여기가 靜子잡인데, 누구에게 검열되고 쓰으릴 사람이 어 되잇소. 재미업는일이 잇거면,

곳 도로와야 하요. 萬一그것을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이 잇다 하면 그는 말하는 사람이 글은
것이지. 내가 어 되외지 辯護를 할 것이요. 그런즉 재미업는일이 잇거면 곳 도로와야 하요.』

『네』하고 靜子는 또다시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果然가기가 실컷지요. 모도 내 잘못이요.當初에 싸안혀서 拒絕을 해버렸드면, 조
흔것을 무뎌두밧하고 잇섯던 丈人으로 畢竟은 이 꼴이 되어서 靜子에게 未安……하며 남
아지말는 하도 안코 歎息을 한다.

『아니야요. 제가 그러케가기를 슬허하지 아니하니까……』

哲秀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그럴理가 萬無해.』

『아니야요. 그러케가기가 실라고도……自己만 行實을 제지내면 周圍야 어찌하던지 백여
내지 못할理도 업슬줄 아니야요.』

『그야 그러하지. 그러나 그러라고 하더라도 실컷지요. 그는 말아니 하더라도 다 아요……
念慮마오! 나도 인제까지던지 靜子를 그런데 보내 내버려둘理는 萬無하오. 얼마아니 되
어서, 무슨 方法을 써가지고서라도 귀여코 靜子를 다시 데려오도록 마련을 해가지고 다시 데
려올터이니, 그저爲先 한두달 동안으로만 알고 참고가 주오.』

『네.』하기는 했스나, 不服하는듯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잘자코 가는 것도 어쩔듯해
서 말씀을 해버리 겠습니 다만은……아재!』하고 어찌라 말할수업는 김은情에 겨운 눈으
로, 哲秀를 쳐다보고,

『제平生所願이 있스니, 드리주소지겠습니까?』

『平生所願? 무엇이든 거나 지리제지 말고 말해주오. 내 할 자라는 것이면 무엇이든 지 하라. 靜子의 일이 라면 무엇이든 나 해주리라.』

하고 氣勢를 보이매, 靜子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본즉, 집안이 이러케不和한 것이 모다 제 탓이야오. 그런즉 제가 이番에 가거던 아모리 밖에서 못 할 일이 있 다 손치 드래도, 참고, 그宅에서 내쫓기前에는 잊겠스니, 아 제께서도...』 하고 딱박했다가 『인제는 제 일은 걱정을 마시고...』 하며 말없이 쉼터, 또 한참 말했다가 決心을 하고 『부디 兄弟를 사, 사랑해 드리...』 『할쎄. 뒤말을繼續치 못하고 슬쩍 저편을 向하야 행주치마로 얼굴을 속가린다. 그 가벌피개 瘦瘠한 자를 보전대 푸수수한머리는 비록 아모케나 드리울 나기는 햇슬망정, 그래도 可憐한 젊은 女子의 心情이라, 다른 사람의 아를 다운 족집개(鰥)대신 에, 돌에 피인 魂과 화 한송이를 씹거 쏘젓스매 그 뜻그임새까지 쉼니면서, 안방에 들니 지나 아니 할가 씨으러, 속우름으로 흘전, 흘전, 한다.

이것을 보매, 哲秀도 잊지한지가 가슴에서 힘이 벅차올라와, 不知中 簌, 簌, 簌, 落淚하였다.

十六

靜子는 畢竟 黃富成의 집으로 갔다. 그後 哲秀의 生活은 별안간 불이 꺼진듯이 寂寂해졌다. 學校는 時間敎授를 합하야 三個所나 擔任한 몸이라, 밤이나 되여 비로소 집에 도라오는새가

週日에도 몇番이나 되지만, 疲困하야도라오래도, 인제는 반가히 마저 주는 사람도 없고 身邊의 잔심부름을 親切히 해줄 사람도 있을쎄 아니라, 茶를 가져오라거나, 불을 가져오라 하더라도, 福童이 母는 對答도 하지 아니하는새가 있다. 이런 일저런 일을 當할새마다, 생간나는 것은 그의 일이니, 아아 靜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가 하고, 아츰에 눈을 뜨자, 第一 門저 생간하는 것도 그것, 밤에 잠들기前에 最後에 생각하는 것도 亦是 그것이 었었다.

靜子가 간지 속사흘만의 일이 었다. 平常時와 가치 學校에서 도라와 본즉, 英子가 었다. 英子가 었다기로 別般關係할 것이 없거니하고, 特別히 지지도 아니 하었스나, 丈母前에서 묻지 말을 쓰집어 내어 오늘아츰에 靜子가 마침 집을 가질너 잠간 들렀슬므로, 眞은 사람해서 묻지 黃氏 집으로 보내고, 靜子는 英子가 가라고 慶男의 집에 人事次로 갔다 한다. 靜子라는 말을 드르매, 哲秀는 이상스러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참고, 일부러 冷靜히 체리면서도 그러고도, 그날아저 이 약이를 듯고저 귀를 기울렸스나, 이 약이는 그쎄. 그後에는 安否하드란 말쎄 이라, 實로 적이 設想하었었다. 必然 黃氏네 집이 약이도 낫을것은 定한 노릇이라 고생각은 했스나, 너 무개여 못다가 도로혀 이에게 속을 썩히는 것이 재피업서, 그만해두고, 自己房으로 도라오기는 도라왔스나, 잊전지 그래도 마음에 設想하다. 하다 못하야 英子라도 어서 왔스면, 오기던 한 번의 더 넘겨잡히, 이 약이를 드려 보리라 하매, 당장 지금까지 어의를 갖거니 相關할 것일라고 생각하던 英子의, 도라오기를, 前에 었지 一刻이如 三秋로 苦待하고 苦待하야, 大門 소리가 날새마다 몇차례 式 귀를 기울렸다.

英子는 저녁前 조금前에 도라왔다. 平常時가치 저녁을먹으러 뒤房에 모였을새, 哲秀는或
그래도 그의 약이가 날가하고, 은근히 마음속으로 期待하지 아니한바가 아니었스나, 結局
그것은 期待가 되고 도로 慶男의 奢侈스러운 生活에 對한 이 약이로 관을 막아, 慶男의
夫人 淑子는 집안에서도 三八저고리치마를 입고있다는 등, 이변에 새로한 덧옷이, 것은 모본
綴에 앞에는 수달피(水獺) 털을 바쳤느니, 山瑚珠조바위손이, 穴貪이나 드라는 등, 演劇구경
은한말에도 三四次式은 가기를 허도가 재되는 아담으로 가른 演劇이나 가른 活動寫眞을 두세
번式이나 되집히보게된다는 등, 寶石한지는 별서부터 式이나잇스니야 쓸데는 업지만은
그래도 쓴것 들고난것이 잇기에 또 샅다고 내보이드라는 등, 도모지 哲秀의 귀에는 하나도
드러오지 아니하는 짜달머리도 업는 이 약이를 부려운듯이 썩 드러대다가, 너 좀 보아라하는 듯
이, 이것저것 그러케 훌훌한것을 내보이며 자랑하는 것이, 말하면, 自己를 蔑視한 것이라 하야,
그 忿怒리로, 인제 나다를 업시, 아모래도 慶男이 는 才操잇는 活動家라는 등, 淑子는 얼굴도
잘생기지 못했지만 그러케 貴榮을 바드니 幸福이라 는 등, 하고 곳 그 것헤 안존 그 누구에게 비
째노코 비싸아서, 말이 이 약이를 하면, 母되는 老人도 넋날 일을 생각해가지고, 아 버님 生存해
계셨을새에는 우리집도 그만 부림지 안케 잘살았다 하고, 넋날 잘못살던생각은 다 이저버
리고, 華麗한 옷만 되푸리기 하고 되푸리기 해가면서 동에도 닳지 아니한 곳에 처량한 한숨을 휘
쉬인다. 哲秀가 인제는 아조 귀에 젖고저저노하서, 아모리 어기대고 비싸드래도, 그다지
늦기지도 아니하나, 그래도, 생도 보면 더 더럽다고, 그런말을 듣고보면, 是는當時에는 決

코 愉快치 아니함으로, 食事가 솟나자 벌써 이러나 뒤入房에서나왔다. 설마 벌써 이러난것
에 무슨意味가 잇슨것은 아니련만은, 母女는 그가 그坐席에 참아안저락이기에 려워 그런
것이라고 誤解한模樣이라, 冷笑로써 自己뒤그림자를 보냈거니하고, 눈으로 쓱본것은 아
니나, 엇전지 그러케 생각되매, 心思가不快하야 自己房으로드러가자마자, 別안간冊床압해
펼쳐주저안저, 아야, 靜子는 무얼하고잇노, 하고, 그래도 또 不識間에 불현듯이 그의생
각이나서 自己가슴을 쓱쳐안았다.

十七

뒤入房에서는 母女가 이마를 맞대이고 단들이 무엇인지 소곤소곤이 약이를 하고잇다. 그中
그것이 中間쯤되어서부터 각금각금 英子의 激한 독살스러운소리와얼려 老人의 慰勞하는
소리도 들리게되고, 얼마아니잇다가 누가우는지 코를 마시는소리까지 들니더니, 그것이
쓰쳐자, 또 소곤소곤이 약이가되여 約두時間쯤은 이 약이소리가 끈히지 아니하고들니더니,
얼마아니되여 드욱하고따다지가열니고, 英子의 몸이 半이나 門지방을 넘어오자, 『잡싼날보
아라!』하고 老人의 목소리로 부른다. 『네?』하고 고개를 들니키는 英子의 얼굴이 房안에
서 흘러나오는 燈불빛에 비취임을보전대, 上氣가되여 이마에서 퍼런줄이 뚝뚝치고, 눈
에는 눈물이 그렇그런것을 참고잇더니 『모든것이 너 하기에달렸다 그런즉 너도 잘생각
해서, 응.』하고 또다시 老人의 목소리로 락일르는데, 房안에서 말하는것을 솟아지체다듯

지라니 하고」그런말을 하시지만 근들 어딘애가 아니겠나.」하고 매다지를 닳고 내키지 않는 지름으로 마루를 지나 哲秀의 房앞까지와서 房안을 되미러 본다.

얼마전에 온 郵便을 燈臺아래에서 熱心으로 보고있던 哲秀는 이씨에 偶然히 無意味한 얼굴을 들어, 되미러 보고있는 英子의 눈과 마주치매, 별안간 어찌라 말할 수 없는 不愉快한 얼굴 빛으로 전지안히 긴 편지를 읽는 英子를 물들말아 집어넣는다.

英子는 그것을 수상한듯이 슬쩍짓는 英子를 보고 火爐것으로 속드러와 앉자 『어디서 온 편지야요』하고 말뚝을 올리며 묻는다.

『집에 왔어요.』하고 哲秀는 구찬은듯이 手편을 向하며, 英子도 별안간 不快히 얼굴빛이 변하니, 그래도 다시 물러서서 模樣으로 『宅內에서 본 여자도 다 安寧하시대요?』

『네, 다 잘있대요』하고 亦是 咄咄하다.

그러나 英子는 別로 이 不快한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종용종용히 『에이 그 多幸이 을시다.』하고 火箸가락으로 불을 해쳐보더니 『아이고 불이 요리케 죽고 매졌네.』하고 두서너개 소동이 될 적지 아니호면서 『茶나 잡수시겠어요.』하고 홀쏘 남편의 얼굴을 본다.

『하고 심지안하요.』하고 단지 그말뿐.

『靜子가 後로 不便하시겠지요.』하고 또 홀쏘 英子를 본다.

『무얼.』하며 다른 便을 向하야 구찬아서 못전달듯이 英子를 찌그린다.

여기는 英子도 果然 別견성이 난 模樣이라, 한참 동안 그의 雙을 노려보더니, 또 다시 생각

을 돌려 『나도 좀 심부름을 해드렸스면 조겠지만, 이 일저 일에 매여서…… 우리 집안이 食口는 적지만, 일이 만흔데다, 그저 모든 체했다면 罪愆한 말씀이지만, 손이 체를 가지지를 못해서……』

『무얼, 別로 심부름할 일도 없스니야.』하고 이씨만은 조금 柔順히 말하며, 英子는,

『아니요, 심부름시키실일이 엄슬 理야 있습니야. 이편일도 僕 만을 줄은 압니다. 만은 그 러쨌만 도모지 손을 아갈새가 잊어야지요. 그야 福童이 미도 잊기는 하지만 아랫것이라,

그저 대고 이것저것 죄다 실행수도 없고, 어머니께서는 老人이라,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나 요. 말하면 나 혼자 바느질도 한다, 부엌일도 살핀다, 或廳에도 나간다, 손님이 오면 對客

도하지안호면 안되겠고, 그래서 元終日 안짓다섯다 허둥지둥하고 날뛰어도 또 일이 생

기고 또 일이 생겨서, 도모지 이루다 해낼 수가 잊어야지요. 그것을 보시고 어머니께서 참아가

만히 안저게 실수가 업서서 이러나시지만, 어머니께서 죽음 무슨 일을 하고나시면, 못 허리가

압호시다, 대리가 꾸지신다, 해서 나중에는, 천다 주물든다, 도로혀 일이 생기는 바람으로, 그

만들시사고해도 그래도 그럭케 밤바하는 걸 참아 보고있을 수가 없다 하시고, 어찌 말을

어 주셔야지요. 그래서 날마다 밤이 되면, 腰痛으로 하셔서 지금도 저 房에서 福童이 미가 대

리를 주들르고 있답니다. 도모지 모든 形便이 그 곱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을 하시는 데요…… 도모지 이래서는, 네놈도 백내지 못할 것이요, 나으리도 不便해서 어

라고 하시는 데요... 이 편에서도 어려우신 데에 이런 말씀을 하기가 나 도 참 아 입에서 나오 지 를 안치 만, 그러나 果然 이以上 더 백여 날 수가 없어서 請을 하는 것인데, 어 쟁 가요? 下人 하 나 만 더 부 리 도 록 해주 실 수가 있 을 가 요.」하고 가 만히 哲秀의 舉動을 살피고 있 스며, 이것 이 하 층 에는 自己 보 다 도 늦 게 이 러 나 재 리 속 에 서 담 배 불 을 찻 는, 英子의 입 에서 나 오 는 말 이 라고 생 각 할 때, 哲秀의 脣端 에 는 冷笑를 禁할 수 없 었 다.

十八

『네, 여 보 서 요.』하고 催促을 하 나, 哲秀는 依然히 默然히 있 습 으 로, 英子는 적 이, 燥急 하 야 『네, 안 되 겠 서 요?』나 는 그 다 지 無理의 말 습 을 하 지 안 는 줄 생 각 합 나 다 만 은. 생 각 을 해 보 아 주 셔 요. 이 때 지 靜子가 있 습 때 에 는 집 안 일 을 어 떠 님 은 내 노 래 도, 나 고 靜子하 고 福童이 미 하 고 셋 이 서 하 지 안 합 습 나 외? 그 것 이 지 금 은 단 들 이 되 었 스니, 셋 이 하 던 일 을 들 이 하 게 되 나 외, 自然 그 러 케 맞 보 재 될 것 은 定한 노릇 이 지 요. 그 러 니 아 모 래 도 안 잡 자 기 하 나 를 더 두 어 주 지 안 호 시 면 나 는 아 모 래 도 백 여 내 지 못 하 겠 서 요.』하 고 말 스 며 니 哲秀의 얼굴 을 본 다. 哲秀는 비로소 입을 열 어 『그 러 면 靜子대 신 에 안 잡 자 기 하 나 를 더 두 겠 다 하는 말 이 로 구 러.』

『네, 말 하면 그 저그런 셈 이 지 요.』하 고 조금 말 이 不分明해 진 다.

『그 러 면, 靜子를 다시 불 러 왔 스면 조 치 요.』하 고 일 부 리 아 조泰然히 말 하 며,

『靜子씨 위 를...』하 고 英子는 한 말 로 이 것 을 排斥 하 였 스나, 그 러 나 哲秀의 말 이 너 무 도 自己의 所料와 틀 님 으 로 皇唐 하 야 所措를 아 지 못 하 는 態度는 감 추 라 해 도 감 추 지 못 하 겠 는 지 라 『靜子씨 위, 그 씨 위 주 착 업 는 것 을, 다 시 불 나 다 가 무 엇 에 쓰 게 요!』하 고 忿한 듯 이 辱 을 해 보 았 스나, 그 래 도 오히려 不滿足 하 야 『이 편 세 서 는 아 모 것 도 모 르 시 나 외 그 런 말 습 을 하 지 만. 靜子란 입 만 았 지, 바 느 질 을 못 잡 으 면 비 선 썩 하 나 를 변 변 히 썩 맬 줄 을 모 르 는 단 나 다...』하 고 마 음 이 焦燥해 한 다.

哲秀는 성이 발 격 나 서, 『바 느 질 은 어 쟁 지 나 는 모 르 겠 소 만 은, 다 른 일 은 나 도 보 아 서 잘 아 라 요. 靜子는 무 엇 을 시 키 던 지 親切 하 고 勿論 下屬輩와 달 라 서 表裏가 업 는 外辭 으 로, 심 부 를 시 키 고 서 라 도 마 음 이 便했 다 요.』하 고 일 부 리 靜子를 稱讚 해 보 았 스나, 너 무 도 정 잔 치 안 라 고 생 각 했 는 지, 마 음 을 들 러 『그 러 나 靜子가 所用이 쉽 다 면, 그 러 면 그 것 은 하 릴 업 다 손 치 데 래 도, 그 래 서 經濟問題는 어 쟁 케 되 겠 소?』사 람 을 더 두 고 라 도 亦是 이 때 지 쓰 던 그 대 중 으 로 되 겠 소?』

『글 세, 그 것 말 이 야 요.』하 고 英子의 態度도 多少 누 그 러 지 『그 리 고 보 면, 아 모 래 도 지 금 대 중 으 로 는 안 될 것 이 야 요.爲先 대 장 計算을 해 보 데 래 도, 바 느 질 할 줄 아 는 것 이 래 야 해 요.그 런 안 잡 자 기 를 더 다 고 보 면, 月給 이 라, 一年 二次 衣次 라, 또 普通 세 라 도 각 금 잔 돈 뿐 을 접 어 주 어 야 할 터 인 주.』그 리 고 보 면 아 모 리 졸 잡 데 래 도 한 달 에 二三十圓 은 더 들 어 야 겠 서 요.』

『더 드는 것이 아니 라 그 것 이 안 잡 자 기 하 나 부 리 는 費用 이 아 니 요?』그 리 치 안 라 하 면 靜子